

보성 백이산에 온천 휴양단지 들어선다

전남도 개발계획 최종 승인... 숙박시설 등 5만㎡ 3월 착공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성 백이산 온천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개발 계획 승인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보성군이 제출한 백이산 온천 개발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도는 백이산 일대 온천 보호지구에 대한 단위계획이 지난해 11월 결정되고 시했고, 민간사업자가 이 일대 부지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개발계획을 최

종 승인했다. 백이산 온천개발은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일대 5만1000㎡(관광휴양시설 1만2000㎡·공공시설 3만9000㎡)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숙박시설 13개동 76실과 상가, 온천장, 노천탕 등을 갖추며 녹지재배 밭이나 허브 가든 등 체험공간 시설도 마련한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219억원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100% 부담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이 일대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알카리성 수질이 발견되면서 시작됐으나 인근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마련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보성군은 온천개발 계획에 대한 전남도의 승인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

의 온천개발 실시계획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인가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전남도와 보성군, 민간사업시행자의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3월께 착공,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성 백이산 온천개발이 완료되면 도내 온천지구는 여수 소호, 순천 낙안, 담양 금성, 구례 산동, 화순 북면, 화순 도곡, 영암 군서, 영광 백수 등을 포함해 9곳으로 늘어났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여수해경 경비함정 견학

여수YMCA 이기스포츠팀단 교사와 학생들이 지난 29일 여수해경 경비함정 508함(500t급) 내부를 견학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연중 경비함정 공개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총 1000여명이 방문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 특산물 '홍합 주식회사' 만든다

어업인 70여명 출자... 브랜드화로 소득 창출 기대

여수시가 지역특산품인 홍합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홍합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홍합은 여수 돌산과 가막만 등의 주요 특산물로 전국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연간 4만 t(300억원)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산 홍합 대부분이 같은

시기에 홍수 출하됨으로써 생산 어업인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홍합 주식회사'를 설립, 홍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가공·판매까지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시는 어업인 설명회를 거쳐 출자 희망 어업인으로부터 현재까지 6억원(70명)의 출자약서를 받았다.

시는 '홍합 주식회사'가 창립되면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합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지금까지 유통업자에게 매달렸던 판매방식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화 경영 및 브랜드화로 어업인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김 주산지 고흥서 '웰빙 김 페스티벌'

내달 5~6일 팔영체육관에서... 생산자 등 3200여명 참가

'제1회 전국 김의 날 대한민국 웰빙 김 페스티벌'이 오는 2월 5~6일 이틀간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사)한국김산업연합회 주최, (사)한국김생산자민연합회 고흥군지회와 전국마른김협회 고흥군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 김 생산어업인을 비롯해 수출업체, 관계기관 단체 등 3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일에는 인기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6일 분향사는 대한민국 김요리 경연대회와 김 품평회를 비롯해 고흥 북놀이, 퓨전 현악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김 산업 발전상 시상과 북소리 만

들기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김 산업 홍보관이 운영되고 김 가공품 전시회가 마련된다. 또 고흥 농·수·특산물 홍보장터와 고흥 우주항공 포토존 등도 운영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김산업연합회는 생산자와 가공업자, 수출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친환경 양식을 통한 우량 김 생산과 지속적인 홍보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내수시장 확대는 물론 세계 60여개국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김을 비롯한 해조류, 패류, 어류 양식등을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우량품종 개발과 껌별 어업 등 소득을 위한 지원 및 보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 김 1억5000만달러(1300만 달러)수출을 기념해 지난해 2월 '김의 날' 선포식을 갖고 김산업 발전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을 '김의 날'로 제정할 바이다. 이번 행사는 '김의 날' 첫 행사로 김 주산지인 고흥에서 열리게 됐다. /동부취재본부=주정환기자 jjiu@

순천 정원박람회장

송전탑 지중화 키로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내 결함없는 송전탑들이 모두 지중화된다. 순천시는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140만㎡(46만 평)에 위치한 15만4000볼트가 흐르는 송전탑 총 12기를 철거하는 지중화 공사를 지난 25일 착공해 오는 7월까지 완료한다. 이번 공사는 정원박람회장내 송전탑 4기와 저류지 조성지 2기, 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한전에 비용 분담을 요청했으나 한전 측은 철거가 필요한 쪽에서 비용을 전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해 결국 순천시가 공사비 전액을 마련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광양시 상수도 요금 3월부터 평균 13% 인상

광양시는 지난 2002년 3월이후 9년 동안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3월부터 가정을 17.2%·일반용 10%·공업용 7.9% 등 평균 13% 인상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요금은 평균 ㎡당 705.6원에서 797.2원으로 91.6원이 오르게 된다. 가정용은 가구당 월 평균 1400원, 일반용은 6420원, 공업용은 3만201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가정용의 경우 한 달 사용량이 20㎡ 이하인 현재 ㎡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1㎡~30㎡ 이하인 ㎡당 700원에서 840원으로, 31㎡ 이상은 ㎡당 1000원에서 1140원으로 구간별로 인상된다. 시는 이번 인상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86.9%에서 98.2%로

뛰어 경영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이후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연 12억8300만원의 적자폭을 줄이고 정수장 확장 등 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전 북

군산시 친환경 학교숲 확대 추진

지난해 우수 모델 선정... 올 월명초 등 5개교 조성

군산시는 명품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학습공간 제공과 도심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2012년도 '학교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청과 전북도가 국·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2011년도 모델 학교숲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당초 계획인 1~2개교 보다 늘어난 총 5개 학교에 2억3600만원을 투입해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서유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월명초, 옥봉초, 당북초, 문창초, 군산중앙고 등 5개교이다. 시는 각 학교의 내대지 공간을 자연학습원, 원터, 미래소 등으로 조성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체험 학습공간을 제



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학교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관계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체적 역할을 갖고 자발적인 사후관리 참여를 위한 학교숲 조성 추진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영진기자 nogsu@

부안군, 불법매립 민원 수수방관

행안면 주민들, 농지 훼손 수차례 제기... 군 관리감독 외면

부안군이 불법매립 민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다. 30일 부안군 행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행안면 부안소방서 인근 농지의 불법매립에 대해 군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군은 지난해 11월께 행안면 신기리 209-1 농지 2347㎡중 650㎡에 대해 개발행위 청구지역 외의 허가제외 부지외의 토지경계의 명확한 구분과 허가부 조건식 허가취소의 협의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또 사업지 주변피해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업자는 당초 매립허가 구역

보다 3배가 넘는 농지(2014㎡ 규모)에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 더욱이 불법 매립농지와 연결된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용수로 범법 하단에 대한 불법점용은 물론 농기계 출입하는 상단 독까지 훼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추정되는 불법매립은 사업허가 부지를 제외한 209-1(1697㎡), 213-1(215㎡), 214-1(102㎡)번지를 포함한 2014㎡에 달한다. 농어촌공사 관리시설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이 형식적 행정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 태평동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 가능

전주시는 도시 대기측정장종 하나인 태평동 상업지역 노후된 대기오염 자동 측정장비를 교체하고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주시 도시 대기측정장은 국가측정망과 연계한 대기오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주거지역(중급속 측정망 포함, 삼전동) ▲상업지

역(태평동) ▲공업지역(팔복동) ▲도로변(금암 광장) 등 4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이형원 환경과장은 "이번 측정장비 교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지역의 대기환경 변화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에 한국어 교육

김제시와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부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읍·면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시와 다문화 센터는 적정 희망인원과 장소를 갖춘 금산면 원평새마을금고 다문화센터와 청하면사무소, 공덕면 사무소 등 3개

지역을 거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어강사를 파견해 주1회 3시간씩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개별·집단 상담과 한국 적응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063-545-8506)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남원시 산간벽지 TV난시청 해소 사업 추진

남원시가 지난 2005년부터 산간벽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05~2011년 357세대를 대상으로 TV난시청 해소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163세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의 경우 산악지대가 많아 자연적 이유로 인한 난시청 지역

이 16개 읍·면 520세대에 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TV 난시청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89%(462세대)를 차지할 정도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이 대다수"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농촌 체재형 가족농원 3차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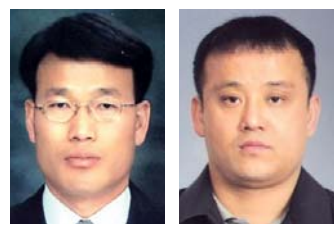
순창군은 동계면 장군목에 농촌 지역 체재형 가족농원을 조성하고 3차 분양을 실시한다. 군은 목조형 활동빌딩 원형 9동(동당 29.7㎡)을 조성해 지난 2010년 8월 분양을 시작했다. 3차 분양은 오는 3월

6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1년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원목외에 텃밭(20여평)을 제공한다. 군은 2월 3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가족농원 입주 공고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할머니 분실지갑 찾아 준 김제경찰

친절 경찰상 구형 호평

김제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분실한 주민의 지갑을 찾아줘 호평을 받았다. 30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공덕파출소 안록재·윤의식 경사는 설을 앞두고 손자들에게 세뱃돈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30만원과 통장 등을 시내버스에 놓고 내렸다는 김모(63·여·김제시 백구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두 경찰관은 김씨가 탑승했던 시내버스 회사에 전화를 연락해 해당차량을 확인한 후 운전기사를



와 통화해 청하면 대청리를 지나던 시내버스 차량 뒷좌석에서 김씨의 손가방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이상주 서장은 "언제나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친절함 경찰상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산림피해 '숲 가꾸기 패트롤'에 맡겨주세요

서부산림청 내달 3일부터

고사목·위험목 직접 제거

"전화 한 통으로 현장 산림 민원을 해결하세요." 서부 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오는 2월 3일부터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 현장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숲 가꾸기 패트롤'(이하 숲 패트롤)을 운영한다. '숲 패트롤'은 산림장비를 탑재한 차량 1대와 전문인력 5인으로 구성, 산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숲 패트롤'은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병든 나무와 주택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농경지와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는 나무 등을 직접 찾아가 제거하며, 평상시에는 주요 도로변 덩굴류나 고사목을 제거한다. <사진> 윤정수 서부 산림청장은 "'숲가꾸

기 패트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림청 민원전용서비스(1588-3249) 또는 서부 지방산림청(063-620-4660)으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